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11월 15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민수기 29장 12절

설교제목 :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오늘 본문은 광야 2세대에게 40년의 유랑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반드시 가나안에서 지켜야할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절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꼭 지켜져야 할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절기는 ‘초막절’인데,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실제로 ‘수카’ 즉 ‘초막’ 혹은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가나안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시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토지소산을 거두는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일 년의 농사가 완성되는 대추수감사절입니다.(레23:39)를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초막절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따라서, 수장절에는 이른 비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수장절에는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다음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른 비가 내려야 합니다. 건기로 인해 딱딱한 땅에 비가 와야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장절 행사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드나무 가지가 세워진 번제단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시편 118:25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를 소리 높여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가 ‘호산나’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이른 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은 추수의 감사와 간구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초막절에 드려지는 예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민29:13) 초막절이 진행되는 7일 동안 수소가 70마리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70마리를 드리지 않습니다. 첫째 날에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수소 13마리를 드립니다.(민29:13) 그리고 둘째 날에는 수소 12마리를 드립니다.(민29:17) 그러면 셋째 날은 수소가 몇 마리 드려질까요? 11마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7일째는 수소 7마리를 드립니다.(민29:30) 그러면 7일 동안 드려지는 수소가 총 70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숫양이 매일 2마리가 바쳐집니다. 매일 두 마리를 칠일 동안 드리면 총 14마리입니다. 그리고 일 년 된 숫양이 매일 열 네 마리가 드려집니다. 매일 열 네 마리가 칠일 동안 드리지니까 총 98마리가 드려집니다. 더불어 밀가루 소제로 336 에바의 밀가루가 바쳐집니다. 그런데 초막절과 제물에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숫자 7이 강조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일곱 번째 달인 티슈월(에다님월)에 진행됩니다. 7일 동안 진행됩니다. 70마리 수소가 바쳐집니다. 14마리 숫양이 바쳐집니다. 7의 배수입니다. 1년 된 어린양이 98마리 바쳐집니다. 7 곱하기 14입니다. 밀가루 336 에바가 바쳐집니다. 7곱하기 48입니다. 숫자 7은 완전수, 충만한 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7은 일년 농사의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7은 가장 기쁨이 충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풍성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기뻐합니까?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은 추수감사절 한 주간을 쉬면서 감사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레 동안’이란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7이란 충만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절기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을 지내면서 마지막 7일째 밤과 8일째 아침까지 밤샘을 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때에는 평소에는 위엄있는 랍비들도 나와서 춤을 추

면서 즐거워합니다. 더불어, 민수기29:39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 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외에**’라는 말이 강조되었습니다. 레위기 23:38절에 보면 확실히 증명됩니다. **레23:38** “이는 여호와와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38절에서 ‘**~외에**’라는 말을 무려 4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기의 예물은 평상시 드리는 예물과 차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진 물질을 보면, 감사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특별하게 풍성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의 최종적 완성을 바라봅니다. 우선, 초막절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됩니다.(**왕상8:2**) 성전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열방이 나아와 초막절 예배를 드리는 환상을 봅니다.(**슥14:16**) 초막절이 열방이 다 지키는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참고 **계14:14-16**) 추수감사절은 주님의 재림에 이루어질 마지막 추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한 해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이른 비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추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결실의 기쁨과, 이른 비의 축복과 마지막 추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가 드리지지길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삶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초막절 행사에 왜 이른 비를 구하는 간구를 드리는지 설명해 봅시다.
- 3) 초막절에 드리지는 제물의 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4) 초막절을 7일 동안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5) 초막절의 예물은 다른 일반적인 예물과 달라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자체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광야에 거하더라도, 가나안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올 한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또한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과 가정의 바램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